

 국토교통부		<h1>보 도 자 료</h1>	
		배포일시	2019. 5. 16. (목) / 총 15매(본문 12, 붙임3)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과장 이명섭, 사무관 임유현, 주무관 노정호 • ☎ (044) 201-4129, 3336
		주거복지 정책과	• 과장 김석기, 사무관 좌명환 • ☎ (044) 201-4504, 4740
	국토연구원	주택토지 연구본부	• 선임연구위원 강미나, 연구원 이건우 • ☎ (044) 960-0349, 0318
보 도 일 시		2019년 5월 17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16(목) 16:00 이후 보도 가능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 일반가구 및 특성가구 결과 발표 -

□ '18년 일반가구 조사결과

- 자가점유율 57.7%, 자가보유율 61.1%
- 자가가구의 연소득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PIR) 5.5배
- 임차가구의 월소득에서 월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RIR) 15.5%
-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 7.1년
- '내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는 의사 비중 82.5%
- 평균 거주기간 7.7년, 자가가구는 10.7년, 임차가구는 3.4년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 5.7% 및 1인당 주거면적 31.7m²

□ '18년 특성가구 조사결과

- (청년) 월세가구 비중(51.7%)이 많고, 전세자금 대출 지원 희망
- (신혼) 전세가구 비중(32.9%)이 많고, 주택구입자금 지원 희망
- (고령) 노후주택 거주가구가 많아 주택 개량·보수 지원 희망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6~12월 표본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하였다.
-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국민들의 주거 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이 '17년 5.9%에서 '18년 5.7%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이 '18년 31.7㎡로 지난해 31.2㎡ 대비 소폭 증가하는 등 주거 수준이 개선되었다.
 - 전국적인 전월세 시장의 안정세로 임차가구의 RIR(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중)이 '17년 17%에서 '18년 15.5%로 감소하는 등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도 완화되었다.
 - 아울러, 주거복지로드맵('17.11),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18.7)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이 강화되면서 이들의 주거 문제도 일부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 청년 가구는 지하·반지하·옥탑 거주 비중이 감소(3.1→2.4%)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10.5→9.4%)도 감소하는 등 주거 여건이 개선되었고,
 - 신혼부부는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면서 자가점유율이 큰 폭으로 증가(44.7→48.0%)하는 등 주거 안정성이 강화되었다.
 - 정부는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의 효과가 일부 체감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도 주거복지로드맵 등에 따른 주거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수도권 중심으로 여전히 내 집 마련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적인 주택시장 안정세로 전국의 PIR은 '17년 5.6배→'18년 5.5배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지난해 국지적 과열이 발생하였던 수도권은 '17년 6.7배→'18년 6.9배로 소폭 상승하였다.

○ 다만, 9.13대책 등으로 수도권의 집값은 '18.12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점 감안하면, 최근의 시장 안정세가 조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실제 9.13 대책 이후 수도권 집값은 12월1주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23주 연속 하락하는 등 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

* 서울의 아파트매매가격지수도 11월2주부터 26주 연속 하락세 지속

○ 정부는 집이 없는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9.13대책 이후의 주택시장 안정세가 오랜 기간 보다 견고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조사를 통해 파악된 국민들의 주거실태 조사결과를 향후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2018년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주거 안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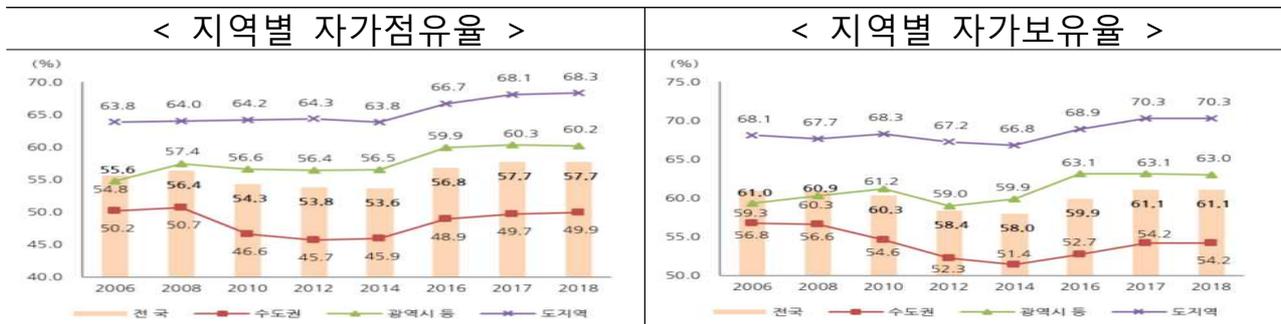
□ (자가점유율) '18년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57.7%로 '17년에 이어 조사 이래 역대 최고수준을 유지하였다.

○ 지역별로는 '17년에 비해 소폭 상승(광역시 제외)하였으나 대체로 전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 (수도권) 49.7% → 49.9% , (광역시 등) 60.3 → 60.2, (도지역) 68.1 → 68.3

□ (자가보유율) '자가'를 보유한 가구도 61.1%로 '17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모든 지역에서 '17년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54.2% → 54.2%, (광역시 등) 63.1 → 63.0, (도지역) 70.3 → 70.3



□ (점유형태) '18년 점유형태는 '자가'(57.7%), '보증금 있는 월세'(19.8%), '전세'(15.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 전월세 임차가구 중 월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6년까지 급증하다가 이후로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임차가구에는 무상가구가 포함되지 않으며, 월세가구에는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연세, 일세가 포함됨



2. 주거비 부담

□ (PIR) '18년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Price Income Ratio)는 전국 5.5배(중위수)로, '17년(5.6배)과 유사한 수준이며,

○ 수도권이 6.9배로 광역시 등(5.6배)과 도지역(3.6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다만, 9.13대책 등으로 수도권의 집값은 '18.12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점 감안하면, 최근의 시장 안정세가 조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중위수 : (전국) 5.6배→ 5.5배, (수도권) 6.7→6.9, (광역시 등) 5.5→5.6, (도지역) 4.0→3.6

* 평균 : (전국) 6.4배→ 6.7배, (수도권) 7.9→8.6, (광역시 등) 5.8→6.2, (도지역) 4.5→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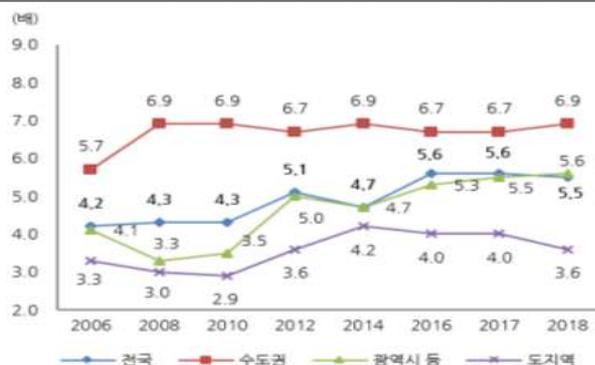
□ (RIR) '18년 임차가구의 월소득에서 차지하는 월임대료 비율(Rent Income Ratio)은 전국 15.5%(중위수)로 '17년(17.0%)에 비해 하락하였으며,

○ 수도권에서 18.6%로 광역시 등(16.3%)과 도지역(15.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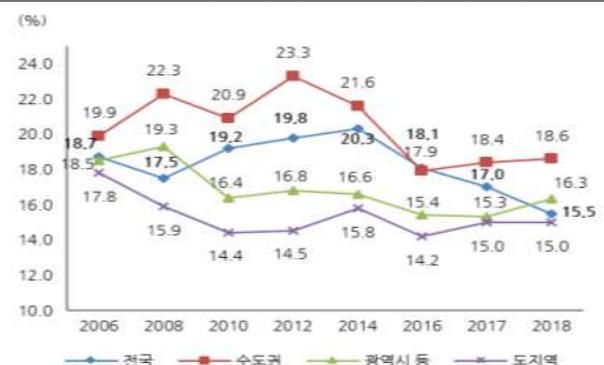
* 중위수 : (전국) 17.0%→ 15.5%, (수도권) 18.4→18.6, (광역시 등) 15.3→16.3, (도지역) 15.0→15.0

* 평균 : (전국) 21.8%→ 21.1%, (수도권) 24.7→24.0, (광역시 등) 17.5→17.6, (도지역) 15.9→15.4

<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PIR) >



<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RIR) >



□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 '18년 7.1년으로 '17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14년 이후 7년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단위: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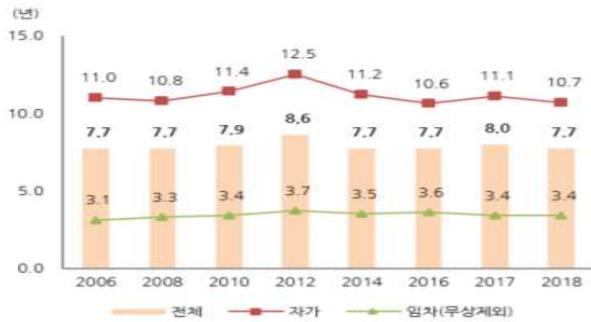
'06년	'08년	'10년	'12년	'14년	'16년	'17년	'18년
8.1	8.3	8.5	8.0	6.9	6.7	6.8	7.1

주)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는 가구주가 된 이후를 기준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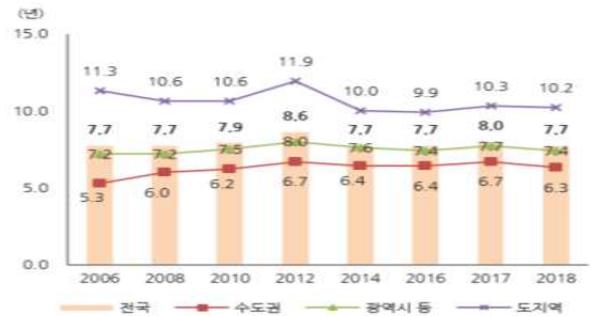
3. 주거이동성

- (평균 거주기간) '18년 전체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7.7년으로 '17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 자가가구는 10.7년을 거주하며 임차가구(무상제외)는 3.4년 거주하고,
- 지역별로는 도지역(10.2년), 광역시 등(7.4년), 수도권(6.3년) 순 이었다.

< 점유형태별 현재주택 평균거주기간 >



< 지역별 현재주택 평균거주기간 >



- (주거이동률) 현재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는 전체가구 중 36.4%이며 자가가구는 21.7%, 임차가구는 58.5%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40.6%)에서 광역시 등(35.5%), 도지역(30.6%)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 이동이 잦았다.
- (이사이유) 이사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시설이나 설비 상향'(41.1%), '직주근접(31.0%)', '주택마련을 위해(28.1%)와 같이 자발적 이동이 높았다.

< 현재 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복수응답) >



4. 주거수준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14년 이후 5~6%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18년(5.7%, 111만 가구)에는 '17년(5.9%, 114만가구)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 (1인당 주거면적) 1인당 주거면적은 '18년 31.7m²로 '17년(31.2m²)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 주거면적은 2017년부터 공동주택에 한하여 행정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기존 조사 대상자의 응답에 의한 주거면적보다 작게 나타남



□ (주택상태 양호도) 전반적인 주택상태 양호도는 '18년 2.98점으로 '17년(2.98점)과 동일한 수준이며,

○ 항목별 주택상태 양호도는 환기상태(3.21점), 채광상태(3.18점)가 높게 나타났으며, 방음상태(2.83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항목별 주택상태 양호도 (4점 만점) >

연도	주택 구조	방수 상태	난방 상태	환기 상태	채광 상태	방음 상태	재난 안전	화재 안전	방범 상태	위생 상태	종합
'14	3.11	3.02	3.17	3.20	3.16	2.69	3.14	3.04	-	-	2.92
'16	3.12	3.08	3.19	3.22	3.17	2.79	3.20	3.16	3.16	-	2.99
'17	3.11	3.10	3.15	3.22	3.18	2.85	3.17	3.14	3.16	3.13	2.98
'18	3.14	3.12	3.15	3.21	3.18	2.83	3.15	3.12	3.13	3.13	2.98

주) 종합 양호도는 항목별 평균이 아닌 주택상태에 대하여 전반적인 양호도를 별도로 질문

5. 주거지원 정책수요 및 평가

-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31.7%)', '전세자금 대출지원(18.8%)',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3.6%)' 등 순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점유형태별로 보면, 자가가구 및 전세가구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월세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지원 및 월세지원'을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응답하였다.

<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1순위) >

구 분	월세지원	전세자금 대출지원	주택구입 자금 대출지원	주택개량 ·개보수 지원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공급	장기공공 임대주택 공급	공공분양 주택공급	주거상담 ·정보 제공 등	기타	계	
전체	10.4	18.8	31.7	8.9	9.4	13.6	4.8	2.4	0.0	100.0	
점 유 형 태	자가	0.4	5.1	50.4	21.3	6.3	7.2	5.3	3.8	0.0	100.0
	전세	1.6	29.5	32.9	1.5	12.8	14.6	5.2	1.7	-	100.0
	월세	26.1	26.1	12.0	1.3	10.3	19.0	3.9	1.2	0.0	100.0

- (공공임대주택 만족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 92.6%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 만족하는 이유로는 '저렴한 임대료(50.4%)', '자주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40.0%)' 순으로 나타났다.

< '18년 공공임대주택 만족도(단위:%) >

구분	만족하는 이유	비중
1위	저렴한 임대료	50.4
2위	자주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40.0
3위	시설이나 주변여건이 좋아서	7.5
4위	가구상황(가구원수 증가 또는 감소 등)에 적합한 주택규모	2.0
5위	기타	0.1

6. 특성가구별 주거실태

< ① 청년가구 >

- (주거안정성) 청년가구는 대부분 임차가구(75.9%)로 거주하고 있으며,
 - * 점유형태 비교(%) : (청년가구) 자가 18.9%, 임차 75.9%, 무상 5.2%
(일반가구) 자가 57.7%, 임차 38.3%, 무상 4.0%
- '18년에는 청년 임차가구 중 전세 가구의 비중(28.9→32.0%)이 증가한 반면, 월세 거주 가구 비중은 감소(71.1→68.0%)하였다.
- (주거비) 청년 임차가구의 RIR은 20.1%로 일반가구(15.5%) 대비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 수도권 거주 청년 임차가구의 RIR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22.2→20.8%)하는 등 전년 대비 주거비 부담은 완화되었다.
- (주거수준) '18년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10.5→9.4%) 및 지하·반지하·옥탑 거주 가구 비중(3.1→2.4%)이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26.6→27.3㎡)이 증가하는 등 주거 수준이 개선되었다.
- (정책수요)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는 '전세자금 대출지원(32.2%)',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24.3%)', '월세보조금 지원(16.4%)' 등 순으로 응답하였다.

< '18년 청년가구 주거실태 >

구분	주거안정성				주거비		주거수준			정책수요	
	자가	전세	월세	무상	임차 RIR	자가 PIR	최저주거 미달가구	지하·옥탑	1인당 면적	1위	2위
청년	18.9%	24.3%	51.7%	5.2%	20.1%	5.1	9.4%	2.4%	27.3㎡	전세대출 (32.2%)	구입자금 (24.3%)
일반	57.7%	15.2%	23.1%	4.0%	15.5%	5.5	5.7%	1.9%	31.7㎡	구입자금 (31.7%)	전세대출 (18.8%)

< ② 신혼부부가구 >

※ '17년 조사에서는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조사되어 시계열 비교는 5년 이내로 비교

- (주거안정성) '18년 신혼부부 가구의 자가점유율(44.7→48%) 및 자가 보유율(47.9→50.9%)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 임차가구 중 월세가구의 비중이 감소(32.2→31.7%)하고 전세가구의 비중은 증가(67.8→68.3%)하였다.
- (주거비) 임차가구의 RIR은 전년 대비 감소(19.6→19.2%)하였다.
 - 다만, 자가가구의 PIR은 전년 대비 증가(5.2→5.3)하였고,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도 다소 증가(78.3→82.7%)하였다.
- (주거수준) 신혼부부 가구의 1인당 주거면적은 24.1㎡로 일반가구(31.7㎡)보다 작은 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혼부부가구의 가구당 평균 인원수가 많기 때문(신혼부부 2.86명, 일반 2.46명)으로 보인다.
- (정책수요)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46.2%)', '전세자금 대출지원(23.8%)' 등 순으로 응답하였다.
 - 한편, 가족계획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1순위)으로는 '주택마련 등 주거문제(30.8)', '자녀 양육비용 및 교육비용(30.4%)', '가계경제 및 고용상태(22.8%)' 순으로 나타났다.

< '18년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

구분	주거안정성				주거비			주거수준		정책수요	
	자가	전세	월세	무상	임차 RIR	자가 PIR	임대료·대출금 부담	1인당 면적	가구당 면적	1위	2위
신혼부부	48.0%	32.9%	15.3%	3.8%	19.2%	5.3	82.7%	24.1㎡	65.6㎡	구입자금(46.2%)	전세대출(23.8%)
일반	57.7%	15.2%	23.1%	4.0%	15.5%	5.5	70.7%	31.7㎡	66.2㎡	구입자금(31.7%)	전세대출(18.8%)

< ③ 고령가구 >

- (주거안정성) 고령가구는 대부분 자가에 거주(75.7%)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자가점유율은 소폭 증가(75.3→75.7%)하였다.
- (주거비) 고령가구는 소득활동이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은 높은 편에 속한다.
 - * 자가가구 PIR : (일반) 5.5 (고령) 9.6 / 임차가구 RIR : (일반) 15.5% (고령) 31.9%
 - 다만, 대부분 자가에 거주(75.7%)하고 있고,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51%)도 일반가구(70.7%)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 (주거수준) 30년 초과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35.1%)이 일반가구(17.6%)대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 (정책수요)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지원은 '주택 개량·개보수 관련 현물 및 자금 대출지원(26.9%)'이며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8.7%)'도 높게 나타났다.
 - 한편,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은 '미끄럼 방지 바닥재(36.0%)', '응급 비상벨(29.7%)', 적절한 높이의 부엌 작업대(29.2%)' 순으로 나타났다.

< '18년 고령가구 주거실태 >

구분	주거안정성				주거비			주거수준	정책수요	
	자가	전세	월세	무상	임차 RIR	자가 PIR	임대료·대출금 부담	30년 초과주택 거주비중	1위	2위
고령	75.7%	7.2%	12.5%	4.6%	31.9%	9.6	51.0%	35.1%	개량개보수 (26.9%)	공공임대 (18.7%)
일반	57.7%	15.2%	23.1%	4.0%	15.5%	5.5	70.7%	17.6%	구입자금 (31.7%)	전세대출 (18.8%)

7. 주거실태조사 개요 및 자료 공개

-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2006년부터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를 격년 단위로 실시해 왔으며, 2017년부터는 보다 적시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 매년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또한,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2017년 조사부터 조사 표본을 2만 가구에서 6만 가구로 확대하여 그동안 부정기적으로 실시해오던 청년, 신혼부부, 고령 가구 등에 대한 주거실태도 매년 파악하고 있다.
- 이번 조사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6만 가구를 대상으로 '18년 6~12월까지 1:1 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최종 연구보고서는 5.17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www.stat.molit.go.kr)에,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정보제공 시스템(www.mdis.go.kr)에 품질점검을 통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붙임1] 2018년 주거실태조사 주요 지표(일반가구)

[붙임2] 2018년 주거실태조사 주요 지표(특성가구)

[붙임3] 2018년 주거실태조사 개요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임유현 사무관(☎ 044-201-4129) 또는
국토연구원 강미나 선임연구위원, 이건우 연구원
(☎ 044-960-0349, 031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 표 명		'06년	'08년	'10년	'12년	'14년	'16년	'17년	'18년	
주거 안정성	자가 점유율(%)	55.6	56.4	54.3	53.8	53.6	56.8	57.7	57.7	
	자가 보유율(%)	61.0	60.9	60.3	58.4	58.0	59.9	61.1	61.1	
	임차가구 중 전세(월세)비율(%)	전국	54.2 (45.8)	55.0 (45.0)	50.3 (49.7)	49.5 (50.5)	45.0 (55.0)	39.5 (60.5)	39.6 (60.4)	39.6 (60.4)
		수도권	62.1 (37.9)	62.7 (37.3)	57.1 (42.9)	55.9 (44.1)	53.9 (46.1)	46.7 (53.3)	46.4 (53.6)	46.3 (53.7)
	주거환경 만족도(4점 만점) ¹⁾	2.86	2.75	2.84	2.83 ¹⁾	2.86	2.93	2.97	2.94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년)	8.1	8.3	8.5	8.0	6.9	6.7	6.8	7.1	
주거비 부담	자가가구의 PIR(배) ²⁾	4.2	4.3	4.3	5.1	4.7	5.6	5.6	5.5	
	임차가구의 RIR(%) ³⁾⁴⁾	18.7	17.5	19.2	19.8	20.3	18.1	17.0	15.5	
주거이동성	평균 거주기간(년)	전체가구	7.7	7.7	7.9	8.6	7.7	7.7	8.0	7.7
		자가가구	11.0	10.8	11.4	12.5	11.2	10.6	11.1	10.7
		임차가구 ⁵⁾	3.1	3.3	3.4	3.7	3.5	3.6	3.4	3.4
	주거이동률 (최근 2년내 현재주택 거주가구 비율 %)	37.5	35.2	35.2	32.2	36.6	36.9	35.9	36.4	
주거수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16.6	12.7	10.6	7.2	5.4	5.4	5.9	5.7	
	1인당 주거면적(m ²)	26.2	27.8	28.5	31.7	33.5	33.2	31.2	31.7	
주거의식과 가치관	주택 보유에 대한 의식(%)	-	-	83.7	(728) ⁶⁾	79.1	82.0	82.8	82.5	

주1) '12년도 주거환경 만족도는 5점 척도로 조사되어, 다른 년도의 시계열 자료와 비교하기 위해 4점 척도로 재계산('12년 5점 척도로는 3.50점)

주2) PIR은 주택가격의 중위수 / 가구 연소득의 중위수

주3) RIR은 월임대료의 중위수 / 가구 월소득의 중위수

주4) 전월세전환율은 주택가격조사(국민은행) 및 월세동향조사(한국감정원)의 월세이율을 활용.

'06년 10월(0.99%), '08년 10월(0.98%), '10년 8월(0.96%)(국민은행 주택가격조사 전국월세이율)

'12년 7월(0.87%), '14년 8월(0.78%), '16년 8월(0.56%), '17년 8월(0.53%), '18년 9월(0.52%) (한국감정원 월세 동향조사 월세이율)

주5) 임차가구에는 전세와 월세(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및 연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포함되며, 무상 거주가구는 제외

주6) '12년 '주택보유에 대한 의식' 은 다른 년도와 보기항목이 달라 직접 비교 곤란

('10, '14, '16, '17, '18년도는 2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며, '12년도는 5점 척도로 조사)

지 표 명		청년		신혼부부			고령		
		'17년	'18년	'17년 5년	'18년 5년 7년		'17년	'18년	
주거 안정성	자가 점유율(%)	19.2	18.9	44.7	48.0	50.7	75.3	75.7	
	자가 보유율(%)	21.1	20.4	47.9	50.9	53.9	77.4	77.5	
	임차가구 중 전세(월세)비율(%)	전국	28.9 (71.1)	32.0 (68.0)	67.8 (32.2)	68.3 (31.7)	68.8 (31.4)	39.4 (60.6)	36.7 (63.3)
		수도권	33.9 (66.1)	37.7 (62.3)	71.4 (28.6)	71.2 (28.8)	71.7 (28.3)	46.3 (53.7)	46.2 (53.8)
	주거환경 만족도(4점 만점) ¹⁾	2.99	2.95	2.99	2.97	2.97	2.91	2.89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년)	1.4	1.6	1.1	1.4	1.7	9.0	9.1	
주거비 부담	자가가구의 PIR(배) ²⁾	5.0	5.1	5.2	5.3	5.1	10.4	9.6	
	임차가구의 RIR(%) ³⁾⁴⁾	18.9	20.1	19.6	19.2	19.2	31.6	31.9	
주거이동성	평균 거주기간(년)	전체가구	1.5	1.4	1.9	1.9	2.2	15.5	15.0
		자가가구	2.3	2.2	2.3	2.2	2.5	18.0	17.4
		임차가구 ⁵⁾	1.3	1.2	1.6	1.5	1.7	6.5	6.8
	주거이동률 (최근 2년내 현재주택 거주가구 비율 %)	80.3	80.9	71.2	69.7	65.0	14.8	15.2	
주거수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비율(%)	10.5	9.4	3.3	4.1	4.0	5.3	4.1	
	1인당 주거면적(m ²)	26.6	27.3	24.0	24.1	23.5	43.6	44.0	
주거의식과 가치관	주택 보유에 대한 의식(%)	70.7	71.0	83.4	83.3	83.8	89.5	89.8	

주1) 청년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만 20세~만34세인 가구

주2) 신혼부부가구는 혼인한지 5년이하('17년), 7년이하('18년), 여성배우자 연령이 만 49세 이하인 가구

주3) 고령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가구

주4) 저소득층(1~4분위), 중소득층(5~8분위), 고소득층(9~10분위)

주5) PIR은 주택가격의 중위수 / 가구 연소득의 중위수

주6) RIR은 월임대료의 중위수 / 가구 월소득의 중위수

주7) 전월세전환율은 월세동향조사(한국감정원)의 월세이율을 활용. '17년 8월(0.53%), '18년 9월(0.52%)

주8) 임차가구에는 전세와 월세(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및 연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포함되며, 무상 거주가구는 제외

주9) 청년가구, 신혼부부의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는 가구주가 된 기간이 짧으므로 해석에 유의

- (통계종류) 조사통계(표본조사) * 승인(협의)번호 제116031호
- (조사대상) 조사시점 현재 대한민국 영토 중 행정권이 미치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반가구 및 이들의 거처
- (조사주기) 매년('17년도 이후부터 매년 시행)
- (조사범위) 17개 시도(세종시 포함, 제주도 이외의 도서지역은 제외)
* 2018년부터 세종시는 '광역시 등'에 포함하여 분석(2017년 이전은 충남에 포함)
- (조사방법) 구조화된 조사표와 훈련된 면접원을 통한 대면면접조사
- (조사기간) 면접원 교육 2018. 6월 4주. ~ 7월 1주.
본조사 2018. 7. 2. ~ 12. 7.
보완조사 2018.12. 8. ~ 12.16.
- (조사기관) 국토연구원, (주) 한국리서치
- (표본규모) 목표표본수 총 61,000가구(일반가구)
유효표본수 총 61,275가구(목표 대비 조사 성공률 100.5%)
- (표본추출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신축아파트리스트 등
- (표본추출방법) 층화2단집락추출법을 적용(1차단위:조사구, 2차단위:가구)
- (상대표준오차 분석) 주택사용면적, 소득, 생활비, 주거비 등에 대한 모평균 추정량의 상대표준오차는 전국의 경우는 1.5% 이내, 시도별 추정의 경우는 약 2~9%로 통계적으로 안정적 추정 가능
- (가중치 작성 절차) 각 표본을 추출확률을 고려하여 설계가중치를 설정하고 무응답 조정과 모집단 정보를 바탕으로 사후조정과정을 거쳐 산출